

#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Physical Violence Between Siblings Among Adolescents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교 수 김 성 희\*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nsumer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Sunghye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and the domestic variables explaining sibling viol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501 adolescents in 2007 and analyzed using SPSS 16.0. The statistics used for analysis were the T-Test, two-way ANOVA, and regression.

Findings indicated that 45% of the sample population had experienced sibling violence and the most common acts were "hit with hand or objects". The violence of parents toward their children, gender, and the frequency of conflict between siblings were associated with sibling violence. From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d that education about sibling violence should be included in social work programs.

**Key Words :** 청소년 (adolescents), 형제자매 폭력( sibling violence), 신체폭력 (Physical violence),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I. 서론

형제자매간 폭력은 가정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제자매 폭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형제자매간의 괴롭힘은 흔히 '싸우면서 크다'라는 통념 하에 성장과정의 일부로 간주되

\* 교신저자, 주저자: 김성희 (ksh@sunchon.ac.kr)

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간 괴롭힘을 단순히 우애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아동학대를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아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과하는 것은 문제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예시키는 것과 같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형제자매 간의 폭력은 경미한 폭력이라도, 또래 간 폭력의 초기 경험이 되어 학교폭력과 성인기의 가정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 경험하는 폭력적 의사소통은 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기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Gelles, & Steinmetz(1980)의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아동의 75.5%이 적어도 한번 이상 형제자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Hardy(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47.8%가 형제자매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형제자매 폭력은 간과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김지혜(2005)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폭력을 연구한 것 외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연령계층에서 실태가 조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의 시각에서 원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현재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사회학습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이론 등이 있다(김인숙 외 6인, 2000; 김성일, 2005; 조추용, 2006; Hoffman, Kibcolt & Edwards, 2007; Eriksen & Jensen, 2006 등).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폭력 경험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을 사회학습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 이론에 근거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높은 단계로 발달하지

만 부모의 통제가 적어지고 신체 발달은 극대화되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이다(Kettrey & Emery,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신체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의 가해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청소년의 형제자매형제 신체폭력 가해 경험은 여성학 이론, 사회학습 이론, 갈등 이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가?

셋째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의 가해 경험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형제자매 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고, 또래 폭력 및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형제자매 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대시켜가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자매 폭력에 대한 설명변수를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탐색함으로써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학 이론

여성학 이론(Feminist theory)은 가부장적 권력과 억압이 어떻게 형제자매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Hoffman & Edwards, 2004). 가부장제 하의 가정은 연령과 성에 기반한 위계질서를 갖고 있고(Wiche, 1997), 가정 내에서 남성의 폭력은 문화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용된다.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원의 신체는 가족의 존속을 위한 공적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무시된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몸은 가부장에게 종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폭력이 정당화된다(심영희, 1995; 김성희, 1998).

실제 2004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의 다수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 비율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가 높은 가정이 17.5%로 그렇지 않은 가정의 9.1%보다 높았다. 그리고 남편우위형인 가정의 폭력은 21.7%로 부부평등형 가정의 9.9%보다 2배 정도 발생 비율이 높았다(한국인권뉴스, 2005. 02. 26). 김인숙 외 6인(2000)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가해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변화순 외 2인(1999), 김인숙(2000)의 연구에서도 가부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형제자매 폭력과 관련해서는 Wiehe(1997)와 Bank & Reid (1996)의 연구에서 남성이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은 남성성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자 형제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 폭력은 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Felson, 1983; 김지혜 2005 재인용).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 폭력에 차이가 없었다. 남자 청소년은 여성학 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폭력적인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도 형

제자매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의 하나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가족 내의 개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어떻게 서로 유사해지며, 폭력이 유발되는지를 설명해준다(Hoffman & Edwards, 2004).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강화와 모방을 통해 학습된다(김제한, 1998).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강화와 벌, 모방, 모델링이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강화를 받은 반응은 점차 강해지고 벌을 받은 반응은 점점 약화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행동을 변화시킨다.

특히 아동은 자주 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공격적 행위, 성역할태도와 같은 행동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여 획득될 가능성이 크다(조복희 외 2인, 1998).

Bandura(1978)는 부모 자녀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인 신체적 체벌은 자녀에게 폭력의 모델과 공격성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했거나 관찰한 행동과 태도가 형제자매 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형제자매 폭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 간의 언쟁이나 부부 간의 폭력도 자주 보고 자란 청소년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싸움이나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폭력 비율이 높았다(한국인권뉴스, 2005. 02. 26). Hoffman과 그의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 간 싸움 빈도나 부부 폭력의 목격 경험, 부모의 성역할태도는 형제자매 간의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 간의 폭력, 부모

의 자녀에 대한 폭력, 부모의 성역할태도는 자녀에 의해 학습되어 형제자매 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3. 갈등 이론

여성학과 사회학습이론 외에 갈등이론도 형제자매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이용된다. 여성학 이론은 사회와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에 관심을 갖지만, 갈등 이론은 구성원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서 가족에 관심을 갖는다(Sprey, 1969).

갈등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갈등을 가져올 때, 공격과 폭력은 각 개인들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Felson & Tedeschi, 1993). 형제자매 간에는 흔히 질투와 경쟁의식으로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부모의 편애적 태도에 대한 질투와 경쟁의식이 형제자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Wiehe, 1997), 형제자매 사이에 폭력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Volling, 1997).

형제자매 간에는 나이차가 적을수록 더 갈등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Hoffman & Edwards, 2004).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 형제의 나이차가 2-4년 미만인 경우 가장 폭력 비율이 높았다. 나이차가 클수록 갈등정도는 낮아지고 폭력 비율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된 가정 자원으로 인한 불공평한 분배도 형제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는 빈번한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그들의 선택의지와 관련없이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배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다른 형제자매의 자원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형제자매간에는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

Strau(1979)의 조사에서 저소득층 가족의 폭

력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빈곤과 형제폭력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Wiehe, 1997).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는 경미한 신체폭력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심각한 신체폭력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가계소득은 가정 내 자원의 제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형제자매 간에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갈등이론과 관련된 가정자원 요소로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 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 이론이 형제자매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인간발달에 기본적 환경인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어 설명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체계론의 관점에서 따르면 가정의 체계는 심리사회 하위체계와 관리 하위체계로 구성된다(임정빈외 4인, 2003).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심리사회 하위체계의 구성요소로 보고,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 하위체계의 구성요소로 보면서 세 가지 이론의 측면에서 하위체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사회학습 이론에 따라 가정의 심리사회 하위체계 구성요소로서 부모 간 언쟁빈도, 부모 간 신체폭력 빈도, 부모자녀 간 언쟁빈도,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여성학 이론에 따라서는 심리사회 하위체계로서 부모의 성역할태도, 본인의 성역할태도를, 관리 하위체계로서 성별과 출생순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갈등이론에 따라서는 관리 하위 체계 요인으로 가계소득과 심리사회 하위체계로서 부모의 자녀 비교 빈도, 형제자매간 언쟁빈도의 관련 여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Kohlberg(1963)에 의하면 16-20세의 청소년 후기는 후인습적 단계로 도덕성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다(이춘재, 1991; 김제한, 199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통제가 적고 신체적 힘을 사용해서 형제자매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높다(Hoffman & Edwards, 2004).

청소년 집단 중 가장 도덕성이 높은 집단인 대학생 집단에서 형제자매 폭력 가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라남도의 S대학 재학생 중 지난 1년간 형제자매 1명 이상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다. 2007년 9월에 600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502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for Windows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포, T-Test, two-way ANOVA,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 2. 조사도구

##### 1) 신체폭력의 가해 경험

신체폭력은 Straus와 그의 동료들 (1980)과 Hoffman와 그의 동료들(2007)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미한 신체적 폭력에서 심각한 폭력에 이르는 15가지 신체적 행위로 구성하였다. 즉 뺨 때리기, 멱살 잡기, 몸을 결박하거나 감금하기, 할퀴기, 낚아 채거나 꼬집기, 때리려고 하거나 던져서 위협하기,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발로 차거나 물어뜯기, 벽에 밀치거나 넘어뜨리기, 손이나 베개로 목 조르기, 화상 입히기, 두들겨 패기, 흉기로 위

협하기, 흉기로 상처 입히기가 포함되었다.

이들 유형 중 ‘몸을 결박하거나 감금하기’, ‘손이나 베개로 목 조르기’, ‘화상 입히기’, ‘두들겨 패기’, ‘흉기로 위협하기’, ‘흉기로 상처 입히기’는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나머지는 경미한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폭력이란 Straus & Gelles(1990)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조추용,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계(%)
성별	여성	209(41.6)	502(100.0)
	남성	293(58.4)	
연령	17세	3(0.6)	502(100.0)
	18세	40(8.0)	
	19세	294(58.6)	
	20세	165(32.9)	
출생순위	첫째	228(45.3)	502(100.0)
	둘째	214(42.6)	
	셋째	60(12.0)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와의 나이차	1살	104(20.7)	502(100.0)
	2살	168(33.5)	
	3살	107(21.3)	
	4살	67(13.3)	
	5살 이상	56(11.2)	
남자 형제의 유무	있음	105(46.9)	502(100.0)
	없음	119(53.1)	
여자 자매의 유무	있음	124(55.4)	502(100.0)
	없음	100(44.6)	
부모의 상황	양친부모	461(91.8)	502(100.0)
	편친부모	26(5.2)	
	계부모	15(3.0)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259(51.6)	502(100.0)
	300-500만원 미만	178(35.5)	
	500만원 이상	65(12.9)	

대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경험을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가해 빈도는 4점 리커트 척도(1=없음, 2=드물게, 3=가끔 4=자주)로 조사되어 점수가 커질수록 폭력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 2) 사회학습 이론 관련 변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 간 상호관계는 자녀에게 학습될 수 있고 형제자매 관계에 모델이 될 수 있다. 부모 간 폭력의 빈도와 부부간의 언쟁 빈도를 1=없음, 2=드물게, 3=가끔 4=자주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학습에 의해 형제자매 폭력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되므로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폭력한 빈도, 언쟁빈도를 4점 척도 (1=없음, 2=드물게, 3=가끔 4=자주)로 조사하였다.

### 3) 여성학 이론 관련 변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은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여 아내학대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Hoffman과 그의 동료들(2007)은 성역할태도를 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장보기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비교해 얼마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가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의 방식을 따라 4점 리커트 (더 많이 한다=1, 같은 정도로 한다=2, 덜 한다=3, 하지 않는다=4)로 조사하였다. 문항간 상관도 Cronbach's Alpha는 0.84였다.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남성은 여성에게 비해 가사노동을 얼마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성역할태도 점수가 많을수록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부장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시하므로 남성이 여성에 대해, 그리고 순위 형제자매가 손아래 형제자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 성별과 출생순위도 조사하였다.

### 4) 갈등 이론 관련 변수

갈등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형제자매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부모의 편애는 형제자매 간에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의 빈도를 1=없음, 2=드물게, 3=가끔 4=자주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형제자매 간의 언쟁빈도도 갈등의 빈도를 나타내므로 얼마나 자주 언쟁을 하였는지 4점 리커트 척도 (1=없음, 2=드물게, 3=가끔 4=자주)로 조사하였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와의 나이 차이도 조사하였다. 형제자매가 공유해야 하는 가정 자원이 부족할 때도 갈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계소득을 1=300만원 이하, 2=301만원~500만원 이하, 3=500만원 이상의 3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 실태

#### 1) 가해 경험 실태

대학생의 44.7%가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Kettrey & Emery(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70.5%가 신체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형제자매 폭력은 조사 대상 가정의 약 50%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폭력의 가해 경험 실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Felson(1983)과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의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가해 빈도가 높아 여성학 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것을 볼 수 있다<표 3>.

<표 2> 형제자매간 신체폭력 가해 경험의 유무

형제자매간 신체폭력 경험 유무	빈도	%
15가지 유형에서 모두 경험 없음	278	55.4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경험이 있음	224	44.7
계	502	100.0

<표 3> 폭력 유형에 따른 남녀 가해 경험의 차이  
(여자 청소년 N=209, 남자 청소년 N=293)

	성별	평균	S.D	t값
경미한 폭력	여자 청소년	10.9	4.09	-1.62
	남자 청소년	11.5	4.36	
심각한 폭력	여자 청소년	6.29	0.92	-2.04*
	남자 청소년	6.58	1.82	
전체	여자 청소년	17.1	4.78	-1.85
	남자 청소년	18.1	5.81	

\* p<0.05

형제자매 폭력이 성의 영향을 받는 것은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표 4>.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가해 경험을 보였고, 남자 형제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폭력 가해가 더 많았다. 여성학 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남자 청소년은 자신보다 권력이 낮은 여성에 대해 폭력적인 한편, 폭력을 견제하는 남자 형제가 존재할 때 폭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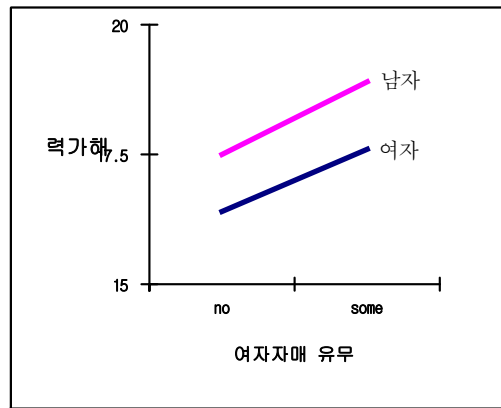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여자 자매가 있는 경우에 가해 빈도가 가장 높았다. 남자 청소년과는 달리 여자 자매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하였지만, 결국 여자청소년도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은 동성 자매에 더 가해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여성학 이론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성이 갖는 권력의 문제가 형제자매 폭력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성별과 형제자매의 성 유무에 따른 가해 경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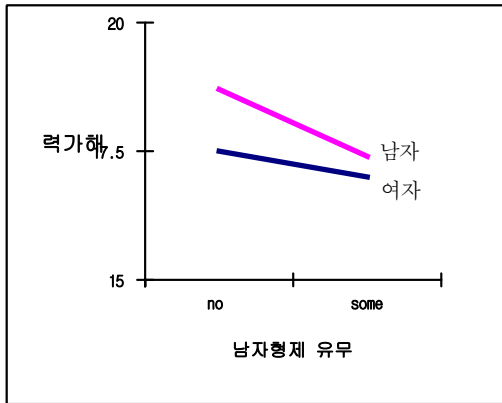
변 수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t값
	평균 S.D (빈도)	t값	평균 S.D (빈도)	t값	
여자 자매	무	16.4 3.16 (75)	-1.97*	17.5 4.91 (174)	-1.85
	유	17.6 5.44 (134)		18.9 6.85 (119)	
	F 값	성별 5.67*			
남자 형제	무	17.5 5.43 (74)	0.78	18.7 5.61 (157)	2.05*
	유	17.0 4.39 (135)		17.4 5.96 (136)	
	F 값	성별 2.40**			
		남자형제 3.70**			
성별X 남자형제 0.71***					

\*P<0.05, \*\*P<0.01, \*\*\*P<0.001

<그림 1> 여자자매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림 2> 남자형제 성별에 따른 차이



2) 폭력의 유형

폭력 유형별로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일어난 폭력 유형은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기’로 29.1%가 한두 번 이상 경험하였다<표 5>. Hoffman과 그의 동료들(2007)의 조사에서는 벽에 대고 밀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와 문화에 따라 폭력의 유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험이 많았던 유형은 ‘때리려고 하거나 던져서 위협하기’로 25.9%의 청소년이 이를 한두 번 이상 경험하였고, ‘주먹으로 치기’도 많아서 22.5%의 청소년이 이를 경험하였다. 이상의 경미한 폭력은 형제자매 간에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각한 폭력 유형인 ‘몸을 결박하거나 감금하기’는 6.4%가 ‘손이나 베개로 목조르기’는 6.0%의 청소년이, ‘흉기로 위협하기’ 3.2%, ‘흉기로 상처입히기’는 2.6%, ‘화상입히기’는 2.0%의 청소년이 이를 경험하였다. 적은 비중의 청소년이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제자매 폭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 유형 중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 유형은 ‘떡살 잡기’, ‘때리려고 하거나 던져서 위협하기’, ‘주먹으로 치기’. ‘벽에 대고 밀치거나 넘어뜨리기’, ‘손이나 베개로 목조르기’, ‘화상 입히기’, ‘흉기로 위협하기’였다. 이들 모든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가해 경험이 높았다<표 5>.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다양한 폭력 가해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2.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학습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이론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수가 청소년의 형제자매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 전체 청소년의 신체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부 싸움이나 부부간 폭력을 자주 보고 자란 청소년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형제자매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Hoffman과 그의 동료들(2007)의 조사에서 부부의 싸움빈도, 부부 폭력의 목격경험은 형제자매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형제자매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6>의 모델 1은 사회학습이론 관련 변수들이 형제자매간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사회학습이론 중 부부 관계와 관련된 변수로서 부모의 언쟁 빈도는 형제자매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언쟁 빈도가 높을수록 형제자매 가해 경험도 높아졌다.

그러나 부모 간 신체폭력은 형제자매 폭력



〈표 5〉 청소년의 신체폭력 유형별 가해 실태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전체 N=502, 여자 N=209, 남자 N=293)

가해의 유형	가해 빈도			성별	평균(S.D)	t
	드물게 (%)	가끔 (%)	자주 (%)			
뺨 때리기	42 (8.4)	7 (1.4)	4 (0.8)	여	1.11 (0.40)	-0.89
				남	1.15 (0.46)	
먹살 잡기	53 (10.6)	11 (2.2)	7 (1.4)	여	1.13 (0.45)	-2.13*
				남	1.23 (0.58)	
할퀴기	41 (8.2)	9 (1.8)	10 (2.0)	여	1.22 (0.62)	1.58
				남	1.14 (0.49)	
뉘아채거나 꼬집기	62 (12.4)	10 (2.0)	11 (2.2)	여	1.26 (0.64)	1.07
				남	1.20 (0.55)	
때리려고 하거나 던져서 위협하기	87 (17.3)	28 (5.6)	15 (3.0)	여	1.28 (0.64)	-2.49*
				남	1.44 (0.77)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기	102 (20.3)	26 (5.2)	18 (3.6)	여	1.35 (0.69)	-1.68
				남	1.46 (0.79)	
주먹으로 치기	75 (14.9)	24 (4.8)	14 (2.8)	여	1.21 (0.56)	-3.42***
				남	1.41 (0.77)	
발로 차거나 물어뜯기	51 (10.2)	11 (2.2)	11 (2.2)	여	1.19 (0.57)	-0.64
				남	1.23 (0.59)	
벽에 대고 밀치거나 넘어 넘어뜨리기	54 (10.8)	12 (2.4)	7 (1.4)	여	1.12 (0.43)	-2.71**
				남	1.25 (0.60)	
몸을 결박이나 감금하기	22 (4.4)	5 (1.0)	5 (1.0)	여	1.06 (0.28)	-1.59
				남	1.12 (0.48)	
손이나 배개로 목 조르기	24 (4.8)	4 (0.8)	2 (0.4)	여	1.03 (0.18)	-2.71**
				남	1.11 (0.40)	
화상입히기	9 (1.8)	0 (0)	1 (0.2)	여	1.00 (0.07)	-2.23*
				남	1.04 (0.24)	
두들겨 패기	35 (7.0)	9 (1.8)	14 (2.8)	여	1.17 (0.58)	-0.54
				남	1.20 (0.61)	
흉기로 위협하기	13 (2.6)	1 (0.2)	2 (0.4)	여	1.01 (0.10)	-2.71**
				남	1.06 (0.33)	
흉기로 상처입히기	10 (2.0)	1 (0.2)	2 (0.4)	여	1.01 (0.15)	-1.80
				남	1.05 (0.30)	

\*P<.05 \*\*P<.01 \*\*\*P<.001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 간의 신체 폭력은 자녀에게 학습되어 형제자매 폭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부 폭력은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여(김태건, 2006), 도리어 형제자매 간에는 폭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부모 자녀 관계와 관련된 사회학이론 변수로 부모 자녀 간 언쟁 빈도와 부모 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는 형제자매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 자녀 간 언쟁이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형제자매간 폭력 경험은 높아졌다.

부부 관계 관련 변수보다 부모 자녀 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형제자매 폭력과 더 관련이

있었으며, 부부 및 부모 자녀 관계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13%였다. 사회학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형제자매간 폭력은 부모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모방하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델 2는 여성학 이론 관련 변수가 부가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6>. Bank & Reid(1996)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서 형제자매 폭력에서도 남자의 폭력성이 높은 것이 지시되었다.

그러나 Hoffman과 그의 동료들(2007)연구에서와는 다르게 부모의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형제폭력에 대한 신체폭력의 가해는 낮았다. 앞서 <표 4>에서 남자 청소년의 폭력은

<표 6>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01)

변수	model 1 B(β)	model 2 B(β)	model 3 B(β)
사회학이론 관련 변수			
부모 간 언쟁 빈도	0.57(0.10)*	0.71(0.13)**	0.31(0.05)
부모 간 신체폭력 빈도	-0.86(-0.06)	-0.74(-0.05)	-0.61(-0.04)
부모자녀 간 언쟁 빈도	1.13(0.19)***	1.09(0.19)***	0.49(0.08)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	1.44(0.21)***	1.39(0.21)***	1.00(0.15)***
여성학 이론 관련 변수			
성별	-	1.17(0.11)*	1.31(0.12)**
출생순위	-	-0.35(-0.04)	-0.37(-0.05)
부모의 성역할태도	-	-0.19(-0.09)	-0.22(-0.11)**
본인의 성역할태도	-	0.18(0.03)	0.12(0.02)
갈등 이론 관련 변수			
나이차	-	-	-0.08(-0.02)
가계소득	-	-	-0.24(-0.03)
부모의 자녀 비교 빈도	-	-	0.45(0.07)
형제자매 간 언쟁 빈도	-	-	1.44(0.27)***
R2	0.126	0.149	0.214
R2 증가분	-	0.023*	0.065***
F	17.85***	10.75***	11.09***

\*P<.05 \*\*P<.01 \*\*\*P<.001

남자 형제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적었던 결과와 결부시켜 볼 때, 가장이 권력을 갖는 경우에 자녀 간 폭력이 통제되어 형제자매 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부모의 성역할태도와는 달리 보수적일수록 폭력적인 방향성을 보였으나 형제자매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한편 가부장적 권위는 가정 내에 연령에 따른 서열로도 나타날 수 있다. Wiehe(1997)는 남자형제들은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손아래 형제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갈등 이론 관련 변수가 추가된 회귀분석 모형이다<표 6>. Sprey(1969)과 Felson & Tedeschi(1993)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형제자매 간에 언쟁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신체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관련된 변수로 Wiehe(1997)와 Vollig(1997)는 부모의 편애가 형제자매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offman & Edwards(2004)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 폭력은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였고, 김지혜(2005)의 조사에서는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형제자매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형제자매간 비교, 나이차, 가계소득이 형제자매간 갈등을 높여 형제자매 폭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은 남자이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폭력 빈도가 많아질수록, 가장의 권위가 낮을수록, 형제자매간 논쟁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전체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부모 자녀 간의 비폭력적 상호작용과 형제자매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가장의 권위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여자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자 청소년들은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변수 중 부모 간 언쟁 빈도, 부모자녀 간 언쟁 빈도,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자 청소년은 부모 간 신체폭력이 많을수록 형제자매 폭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모의 폭력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도 희생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폭력 행사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여성학 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부모의 성역할태도나 자신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순위가 손아래보다 더 폭력적이지 않았다.

갈등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자 청소년은 가계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형제자매 간에 가정 자원 분배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여자 청소년은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았다.

형제자매 간 언쟁 빈도도 여자 청소년의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언쟁 빈도가 많아질수록 폭력이 증가하였다. 형제자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여자 청소년은 민주적 의사소통이 아닌 폭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형제자매 간에 언쟁이 많아질수록 형제자매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 간 신체폭력을 많이 목격

〈표 7〉 여자청소년의 형제자매 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09)

변수	model 1 B(β)	model 2 B(β)	model 3 B(β)
사회학습 이론 관련 변수			
부모 간 언쟁 빈도	0.79(0.15)*	0.84(0.16)*	0.61(0.12)
부모 간 신체폭력 빈도	-1.66(-1.14)	-1.55(-0.13)	-1.57(-0.13)*
부모자녀 간 언쟁 빈도	0.95(0.20)**	0.92(0.19)**	0.61(0.13)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	1.46(0.25)***	1.48(0.25)***	1.38(0.23)***
여성학 이론 관련 변수			
출생순위	-	-0.48(-0.06)	-0.59(-0.08)
부모의 성역할태도	-	-0.09(-0.05)	-0.14(-0.08)
본인의 성역할태도	-	0.02(0.03)	0.15(0.02)
갈등 이론 관련 변수			
나이차	-	-	-0.14(-0.05)
가계소득	-	-	-0.82(-0.13)*
부모의 자녀 비교 빈도	-	-	0.13(0.02)
형제자매간 언쟁 빈도	-	-	0.96(0.21)**
R2	0.174	0.181	0.234
R2 증가분		0.007	0.053*
F	10.73***	6.36***	5.47***

\*P<.05 \*\*P<.01 \*\*\*P<.001

〈표 8〉 남자청소년의 형제자매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93)

변수	model 1 B(β)	model 2 B(β)	model 3 B(β)
사회학습 이론 관련 변수			
부모 간 언쟁 빈도	0.61(0.10)	0.61(0.10)	0.13(0.02)
부모 간 신체폭력 빈도	-0.16(-0.10)	-0.06(-0.00)	0.04(0.00)
부모자녀 간 언쟁 빈도	1.28(0.19)***	1.22(0.19)***	0.52(0.08)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	1.38(0.19)***	1.31(0.18)**	0.68(0.09)
여성학 이론 관련 변수			
출생순위	-	-0.30(-0.04)	-0.47(-0.06)
부모의 성역할태도	-	-0.25(-0.12)*	-0.29(-0.13)*
본인의 성역할태도	-	0.30(0.04)	0.06(0.01)
갈등 이론 관련변수			
나이차	-	-	0.01(0.00)
가계소득	-	-	0.28(0.03)
부모의 자녀 비교 빈도	-	-	0.65(0.10)
형제자매간 언쟁 빈도	-	-	1.81(0.32)***
R2	0.115	0.132	0.220
R2 증가분	-	0.017	0.088***
F	9.36***	6.21***	7.20***

\*P<.05 \*\*P<.01 \*\*\*P<.001

할수록 형제자매 폭력 가해는 적어졌다. 이들 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 3) 남자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는 달리 부모의 부부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과 동일하게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변수인 부모자녀 간의 언쟁 빈도와 신체폭력 빈도의 영향을 받았다. 즉 부모가 자녀와 언쟁하는 빈도가 많고 신체폭력을 행사할수록 형제자매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증가하였다<표 8>.

또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이 성역할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과는 달리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받았다. 가장이 권위적일수록 남자 청소년의 폭력은 감소하여,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가 형제자매 폭력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가해 경험은 가계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해 경험이 증가하였지만 남자청소년은 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가족의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갈등에 덜 민감하였다.

남자청소년도 여자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간 언쟁빈도가 증가할수록 신체폭력 가해는 증가하였다. 형제자매 간의 나이차나 부모의 편애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청소년은 형제자매 간 언쟁빈도가 많을수록 폭력이 증가하였고, 가장이 권위적인 경우 폭력이 감소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22%를 설명하였다. 남자청소년의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권위를 갖고 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제자매 간에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V. 결 론

형제자매 간의 신체폭력 행위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임에도 발달 과정의 당연한 결과로만 간주되고 폭력성에는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도덕발달 단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 대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 이론의 세 측면에서 설명변수를 탐색하였으며,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사 대상의 55%는 신체폭력 경험이 없었으나 45%는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가해 경험을 갖고 있었다.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 경험을 가진 대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폭력 유형은 ‘손이나 물건으로 때려본 경험’으로 29.1%가 가해 경험이 있었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여러 폭력 유형에서 가해 경험이 많았다.

둘째, 형제자매 폭력은 사회학습 이론, 여성학 이론, 갈등 이론으로 설명되었다. 여성학 이론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내에서 권력을 소유한 남성에게 의해 발생된다고 가정되는데, 형제자매 폭력에서도 심각한 폭력 유형에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형제자매에게 가해적이었다. 가해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 형제가 없을 때, 여자 청소년은 동성 자매가 있을 때 더 가해적이었다. 동성 남자 형제는 권력을 통제할 능력이 높고, 동성 여자 자매는 권력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학이 가정하는 권력의 문제가 형제자매 폭력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적일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아

내폭력에서 남편이 가부장적 태도를 가질수록 가정폭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성역할태도는 가부장적인 경우에 형제폭력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폭력의 경우에는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가 오히려 폭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에 대해서는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교육시키고 부모에 대해서는 권위를 갖고 형제자매간 폭력을 통제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 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부부 싸움이나 부부 간 폭력을 자주 보고 자란 청소년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형제자매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도 부부의 언쟁 빈도가 잦아질수록, 부모자녀 간 언쟁 빈도가 많아질수록,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형제자매 간 폭력의 가해 경험도 증가하였다. 다만 부모의 부부 간 신체폭력은 형제자매 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부 간 폭력이 자녀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여 형제자매 관계를 긴장시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모델링이 형제자매 폭력 예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형제자매 폭력을 설명하는 갈등 이론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형제자매 간의 언쟁의 빈도가 형제자매 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가장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차이가 많아질수록 신체폭력이 증가하였다. 형제자매 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계소득도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자원으로서 여자청소년의 형제자매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빈곤 가정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의

한 형제자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형제자매 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형제자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 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 형제자매의 성별, 부모의 성역할태도, 형제자매 간 언쟁 빈도가 관련 있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간 신체폭력 빈도, 부모자녀 간 신체폭력 빈도, 가계소득, 형제자매 간 언쟁 빈도가 관련 있었고,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성역할 태도, 형제자매 간 언쟁빈도가 관련이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몸은 권리의 주체이고, 자기결정의 대상이므로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성의 발달 수준이 높은 대학생에게서도 45%에게서 경미한 신체폭력이 발생하였고, 7% 정도에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형제자매 폭력은 간과될 수 없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므로 이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 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이 나타나고 있고,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형제자매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으며,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있을 시 민주적인 대화보다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제자매 간 폭력이 또 다른 학습 경험이 되어 또래 폭력, 학교 폭력, 성인기의 가정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폭력을 예방하면서 민주적 의사소통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폭력을 설명하는 변수를 가정환경 변수로 제한하여 대중매체의 영향, 학교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여러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향 변인을 조사하여 설명력을 높이는 등 형제자매 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일(2005). 가정폭력, 성역할 학습, 학교 폭력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215-241.
- 2) 김성희(1998).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7-27.
- 3)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신은주, 윤영숙, 이혜경, 최선화(2000). 여성복지학. 서울 : 남출판사.
- 4) 김제한(1998). 발달심리학. 서울 : 양서원.
- 5) 김태건(2006). 아내폭력 노출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 6)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7) 심영희(1995).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권력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1, 72-109.
- 8) 이춘재(1991).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9)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2003). 가정관리학. 서울 : 신정.
- 10)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8).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11) 조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2006). 가족복지론. 서울 : 창지사.
- 12) 한국인권뉴스, 2005. 02. 26.
- 13) Bandura, A.(1978). Learning and behavioral theories of aggression. In I.L.Kutash, S.B.Kutash, L.B. Schlesinger & Associates (Eds.). Violence : Perspectives on murder and aggression, 29-57. San Francisco : Jossey-Bass.
- 14) Bank, L., Patterson, G. R., & Reid, J. B. (1996). Negative sibling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later adjustment problems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 males. Advances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97-229.
- 15) Eriksen, Shelley & Jensen, Vickie (2006). All in the Family?. Family Environment Factors in Sibl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 497-507.
- 16) Felson, R.B. (1983). Aggression and Violence between Sibling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4), 271-285.
- 17) Felson, R.B. & Tedeschi, J.T. (1993). Social interactionist perspectives on aggression and violence : An introduction. In R.B. Felson & J.T.Tedeschi(Eds). Aggression and violence : Social interactionist perspectives, 1-10.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8) Hardy, M. S (2001). Physical aggress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siblings :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3), 255-268.
- 19) Hoffman, Kristii L. & Edwards, John N. (2004). An Intergrated Theoretical Model of Sibling Violence and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3), 185-200.
- 20) Hoffman, Kristii L., Kiecolt, K.Jill, & Edwards, John N.(2007). Physical Violence Between Siblings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 Issues 26(8), 1103-1130.
- 21) Kettrey, Heather Hensman & Emery, Beth C.(2006). The Discourse of Sibl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August), 407-416.
- 22) Sprey, J.(1969). The family as a system of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699-706.
- 23) Straus, M. A. Gelles, R.J. & Steinmetz, S.K.(1980). *Behind the Closed Door :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 : Double day.
- 24) Straus, M. A. & Gelles, R.J. (1990). Marital Violence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M.A.Straus & R.J. Gelles (ed.).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 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Publishers.
- 25) Volling.B.L.(1997). The family correlates of maternal and paternal perceptions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early childhood. *Family Relations* 46, 227-236.
- 26) Wiehe, V. R.(1997). *Sibling abuse : Hidden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trauma* (2nd ed.).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 Sage.

- 접수일 : 2008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6일